

상담자-잠재적 내담자의 가치관 유사성과 기대되는 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 영 희 박 의 숙 고 향 자
숙명여대 울산대 숙명여대

본 연구에서는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추구하는 가치관(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과 잠재적 내담자의 가치관(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에 따라서 잠재적 내담자가 평가하는 상담자와 상담의 효과에 대한 평정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연구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총 104명의 대학생(잠재적 내담자)들이 비디오테이프에 나타나는 모의상담자(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는)와 자신이 직접 상담하고 있다고 가상하면서 시청하고 나서 그 상담자와 예기되는 상담의 효과를 평정하도록 설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비교적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상담회기 중에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즉 가족에 대한 염려, 관심, 가족간의 조화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는 상담자) 보다는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즉 내담자의 감정, 욕구, 목표와 같은 내담자의 내적인 경험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는 상담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더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와같은 상담자와 상담한다고 가상할 때에 상담의 효과도 더 긍정적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반하여 비교적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상담회기 중에 상담자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대하여 그다지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상담자가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던지 아니면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던지에 따라서 상담자의 호감성,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예기되는 상담의 효과를 다르게 평가하지 않았다.

다문화적 심리치료에 관심이 있는 상담심리학자들은 전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스타일이 서양의 문화적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Sue, 1981)과 함께, 비서양 문화권의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에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변형한 상담스타일을 적용하여야 효과적이라고(Thomas & Althen, 1989 : Tseng & McDermott, 1975) 역설해 오고 있다. 즉 서양의 문화적 가치관을 토대로 하여 개발된 상담의 기법, 스타일을

* 이 논문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논문의 일부이며, 한국심리학회 '95 연차학술대회에서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담자의 가치관과 잠재적 내담자의 가치관이 상담자 및 상담의 효과 평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임.

백인계 내담자가 아닌 동양계 또는 비서양국의 내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한편에서는 그들에게 적절한 상담스타일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그 한 예로 Yuen과 Tinsley(1981)은 상담에 대한 미국 학생들과 비서방 국가들(즉 중국, 아프리카, 이란)에서 온 외국 학생들의 기대를 비교한 결과, 미국 학생들은 상담자가 덜 지시적이고 덜 보호적일 것을 기대하였으나 중국, 아프리카, 이란에서 온 외국 학생들은 상담자가 좀 더 지시적이고 양육적, 권위적일 것을 기대하였다. 미국 학생들에 비하여 외국 학생들이 더 지시적인 상담스타일을 선호한다는 연구는 그 외에도 많이 있다(예를 들면, Exum & Lau, 1988 : Kang, 1992). 이와 같은 연구들은 물론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를 상담하기 위하여 어떤 상담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만, 실제로 상담자가 상담장면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못한다. 그와같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최근에 드물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권이 아닌 나라에서 자라난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에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담심리학계에서는 상담장면에서 나타나는 상담자의 가치관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상담자가 상담장면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내담자에게 강요하거나 주입시키는 것은 대

체로 치료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설사 상담자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여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최대한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서구의 개인주의 가치철학을 토대로 개발된 상담의 이론을 적용시킨다면 상담자가 상담과정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역시 서구의 개인주의와 관련된 가치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상담자가 개인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예를 들면, Hofstede, 1980, 의 정의에 따라서 개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인 집단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개인주의 가치에 초점을 두면서 상담을 진행시켜 나간다면 내담자의 적응을 돕기 보다는 오히려 내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Thomas의 연구결과(Thomas & Althen, 1989, 재인용)에 의하면, 서양 문화권이 아닌 나라의 내담자들은 개인주의적인 관점을 반영한 상담자(즉 내담자의 필요와 욕구에 초점을 둔 상담자)에 비하여 생태학적인 관점을 반영한 상담자(즉 내담자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필요, 욕구에 초점을 둔 상담자)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개인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특히 집단주의 문화권의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상담장면에서 집단주의와 관련된 가치(즉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역으로 해석해 보면, 개인주의 문화권에 있는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상담장면에서 집단주의와 관련된 가치를 추구할 때 보다는 개

인주의와 관련된 가치를 추구할 때 그 상담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Kelly와 Shilo(1991)의 연구에서 이와같은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문화권으로 알려진(Hofstede의 연구에 따르면) 백인계 내담자들이라고 하여 집단주의와 관련된 가치(즉 social commitment)에 초점을 두는 상담자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가치성향을 개인적인 수준에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집단주의와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담자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지(또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와같은 결과가 반드시 내담자 변인(내담자의 가치관)에 기인한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겠다. 하지만 혹시 그들의 연구에서 내담자들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으로 구분하여 상담자 평정을 하도록 설계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와같은 아쉬운 점을 고려하면서 최근의 다문화적 상담연구의 동향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을 단순화시켜보려는 경향보다는 한 문화권 내에서도 내담자간의 가치성향의 차이점을 고려하는 상담유형이 더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한 예로, 박외숙(1992)은 미국내의 아시안계의 나라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시안계 유학생들과 상담할 때에는, 상담자도

상담장면에서 내담자의 가치성향(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과 유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시말하면, 한 문화권내에서도 (개인주의 문화권 또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도) 개인적인 수준에서 각 개인의 개인주의 성향 또는 집단주의 성향을 고려하여 다른 상담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학생중에 있는 아시안계 대학생들은 적어도 첫번째 상담면접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유학생들은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할 때, 즉 내담자의 욕구, 느낌에 초점을 두는 상담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유학생들은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할 때, 즉 가족에 대한 염려, 관심, 가족 구성원간의 조화에 초점을 두는 상담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외에도, 상담자-내담자의 가치관을 반드시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상담자-내담자의 가치관 유사성 여부와 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더러 발견된다. 예를들면, Lewis와 Walsh (1980)은 결혼 전의 성문제에 대하여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반영하는 경우보다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유사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경우에 내담자들은 그 상담자와 또다시 상담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Foon(1986)의 연구결과도 다소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제신념(locus of control)면에서 상담자-내담자의 유사성이 상담의 성과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에 결정적인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같은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

에서는 국내에서도(동일한 문화권 내에서도)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내담자의 가치성향(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가치성향)과 유사할 때에 그 내담자는 상담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번째 가설은, 개인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내담자는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반면에 집단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내담자는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두번째 가설은, 개인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내담자는 상담자가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할 때, 상담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것이며, 반면에 집단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내담자는 상담자가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할 때, 상담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것이다.

연구방법

1. 참가자

서울 지역의 S 여자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인 '인간관계론'과 '교육심리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104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본 연구의 취지를 담당교수로 부터 듣고 연구에 자원해서 참가하기를 희망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학기말 성적에서 가산점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전히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의 전공학과가 다양하게 섞여 있었으며,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학년분포도 다양하였으나, 주로 2,3학년이 대부분이었다.

2. 절차 및 설계

첫째로, 연구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에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라서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관 척도를 완성하였다.

둘째로, 참가자들은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관 척도 점수에 따라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집단으로 분류가 되었다. 본 연구의 예비연구에서 전국의 15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 749명을 대상으로 산출된 여대생들의 가치관 척도의 평균점수인 4.01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점수보다 높은 학생들 (41명)은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평균점수보다 낮은 학생들 (63명)은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셋째로,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관 척도 점수가 전국 여대생의 평균점수(4.01) 보다 낮은 집단(M=3.71)과 평균점수 보다 높은 집단(M=4.2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증해 본 결과, .0001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평균보다 낮은 집단은 개인주의 참가자 집단이라고 명명하였으며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집단주의 참가자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넷째로, 총 104명 중에서, 56명은 개인주의 상담모형을 반영해 주는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한 후에 자신이 시청한 비디오테이프에 나타난 상담장면에 대하여 상담자와 기대되는 상담의 효과를 평정하는 질문지를 완성하도록 지시받

았다. 그리고 나머지 48명은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반영해주는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한 후에 각각 동일한 상담자 평정지에 반응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이 잠재적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서 비디오테이프에 나타난 상담자와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상하면서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하고, 질문지를 완성하도록 요청받았다.

3. 도 구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관 척도 : 본 연구의 예비연구에서 제작된 도구로서 참가자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 대한 가치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4개의 하위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전체 점수와 각각의 하위척도 점수와의 상관계수는 모두 .60이 넘어서 상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전체점수와 각각의 하위척도에 대한 Cronbach alpha 신뢰도 계수는 .79 에서 .82 의 범위내에 있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의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의 전체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전체점수는 총점을 46문항수로 나눈 평균치이다. 따라서 전체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6점까지이다. 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약한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6점에 가까울수록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약한 것을 의미한다.

비디오테이프 제작 :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은 자신이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와 상담한다고 가정할 때에 그 상담자와 상담의 효과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반면에 집단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은 자신이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와 상담한다고 가정할 때에 그 상담자와 상담의 효과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개 (개인주의 상담모형과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나타내는)의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고 그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두개의 비디오테이프는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나타내기 위하여 조작되었다. 모의상담자와 모의내담자가 상담자-내담자의 역할놀이를 통하여 상담하는 과정을 녹화한 것이다. 모의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는 여대생의 결혼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이었다. 구체적으로, 내담자는 제주도 출신의 4학년 여대생으로서 무남독녀 외동딸이다. 아버지는 55세의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53세의 주부다. 내담자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는 종가집 종손으로서 군대도 다녀와야 하고 만일에 내담자가 이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면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할 조건이다. 내담자의 부모님은 이와같은 여러가지 조건들에 대하여 반대하시고 내담자는 이와같은 갈등 상황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몰라 상담실을 찾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의상담 대본은 박외숙 (1992)이 개인주의-집단주의 상담모형을 나타내기 위하여 영어로 제작했던 대본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약간의 수정을 거치고 타당도를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개

인주의 상담모형을 나타내는 비디오테이프에서의 상담자의 주된 역할은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부모의 감정과 욕구와 분리시키면서, 내담자 자신의 감정과 욕구, 그리고 내적인 경험에 대한 자각을 높이면서 내담자 자신을 위하여 가장 최선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반면에,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나타내는 비디오테이프에서의 상담자의 주된 역할은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부모와 가족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감감해지도록 도우며, 자신의 의사결정이 그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도록 격려해 주며, 가족과 융화하면서 가족 전체를 위하여 최선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두 개의 비디오테이프에 나타난 모의상담자는 동일한 인물이며, 상담심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자이다. 두개의 테이프에 나타난 모의내담자 역시 동일한 인물이며, 상담심리학 석사과정에 있는 여자이다. 모의상담자는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두개의 테이프에서 복장, 얼굴표정, 목소리의 높낮이 등의 면에서 가능한 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하였다. 비디오테이프의 상담장면에 대하여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상담자 및 상담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비디오테이프에 나타난 내담자의 역할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두개의 테이프 모두에서 모의내담자는 모의상담자의 질문과 반응에 단지 수동적으로 따르는 최소한의 반응만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각각의 비디오테이프는 약 15분씩 소요되었으며, 4단계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즉, 도입, 문제의 정의, 문제의 설명, 그리고 상담목표의 설정 단계로 나누어 편집되었다. 각각의 단계마다 약 2초간의 침묵이 있다. 그리고 2개의 테이프에서 도입단계를 나타내는 상담장면의 상담자-내담자의 언어반응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상담모형의 구분이 없이 동일하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나타내도록 제작되어진 비디오테이프에서 상담자의 언어반응이 과연 각각의 상담모형에서 정의된 상담자의 역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시내의 여자 대학교의 2,3학년 재학중인 5명의 학생들에게 상담자-내담자의 상담장면(특히 상담자의 언어반응)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5명의 학생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우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상담모형에 대한 정의를 읽고,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하는 절차,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 다음에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나타내는 테이프에서 동일한 부분인 도입단계를 먼저 시청하고, 곧 이어서 개인주의 상담모형을 나타내는 테이프의 3단계 상담장면(문제의 정의, 문제의 설명, 상담목표설정)과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나타내는 3단계의 상담장면(문제의 정의, 문제의 설명, 상담목표설정)의 총 6개의 상담장면 중에서 무작위로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한 장면씩 시청한 후에 각 장면에 대하여 그 상담장면에서의 상담자의 언어반응이 개인주의 상담모형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5점척도에 표시하도록 지시되었다. 상담장면이 매우 개인주의 상

상담모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면, 1점 ; 다소 개인주의 상담모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면, 2점 ; 어느쪽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3점 ; 다소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면 4점 ; 그리고 매우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면 5점에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채점방식은 5명이 모두 한 상담장면에 대하여 1점 또는 2점에 표시하였으면 개인주의 상담모형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4점 또는 5점에 표시하였으면 집단주의 상담모형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6개의 상담장면 모두에 대하여 5명이 100%의 일치율을 나타내어 2개의 비디오테이프가 각각(조작적으로 정의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상담자에 대한 평정 : 비디오테이프에 나타난 상담자를 평정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오경희(1986)에 의하여 번안되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상담자 평정 척도-축소형(CRF-S : Counselor Rating Form-Short Version)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Barak과 LaCross(1975)가 개발한 것인데 Corrigan과 Schmidt(1983)이 문항수를 줄여 축소형으로 만든 것이다. 상담자 평정 척도-축소형은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척도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번호는 다음과 같다. 상담자의 호감성에 대한 문항번호는 3, 5, 8, 10 ;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문항번호는 1, 4, 6, 11 ; 그리고 상담자의 신뢰성에 대한 문항은 2, 7, 9, 12이다. 척

도의 각 문항은 원래 7점 척도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6점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여, 각 하위척도의 점수범위는 4-24점이다.

상담의 효과에 대한 평정 : 상담의 효과를 평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담의 성과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와 상담의 계속성에 대한 예견을 측정하였다. 상담의 성과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Fridelander(1982)이 개발한 내담자 기대 척도(Client Expectancy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Fridelander가 제시한 이 척도의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6점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6점에 이르기 까지)로 되어 있다. 마지막 문항은 역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척도 점수의 범위는 14-84점이다.

상담의 성과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 외에 상담의 효과를 평정하기 위한 또 한가지 방법으로서, 상담의 계속성에 대한 예견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담 계속성 예견 척도(Expectancies for Counseling Continuation)를 사용하였다. 상담 계속성 예견 척도는 Cash와 Kerh(1978)가 개발한 2개의 문항으로 된 척도를 번안한 것이다. Chambers(1979)가 제시한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첫번째 문항은 "만약에 당신이 이 상담자와 앞으로 상담을 계속한다면 도움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으며 6점척도로 되어 있어서 매우 비관적이면 1점이며 매우 낙관적이면 6점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두번째 문항은 "당신은 이 상담자와의 두번째 상담에 응하시겠습니까"

까?” 라고 질문하고 있으며 6점척도로 되어 있다.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1점이며 ‘반드시 응한다’는 6점으로 채점하였다. 상담 계속성 예견척도의 점수의 범위는 2점에서 12점까지이다.

결 과

1. 상담자 평정에 대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첫번째 가설은, 개인주의의 가치성향을 지닌 내담자는 개인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반면에 집단주의의 가치성향을 지닌 내담자는

집단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자 평정 하위척도 점수에 대하여 참가자의 가치성향(개인주의 참가자와 집단주의 참가자)과 상담모형(개인주의 상담모형과 집단주의 상담모형)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가설1>을 지지하기 위한 조건은 이원변량분석의 결과에서 참가자의 가치성향과 상담모형간의 상호작용효과가 .05수준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원변량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우선 상담자 평정 하위척도(호감성, 전문성, 신뢰성) 점수와 전체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참가자 가치성향과 상담모형에 따른 상담자 평정 척도 점수의 평균

	개인주의 상담모형			집단주의 상담모형		
	N	M	(SD)	N	M	(SD)
상담자의 호감성						
개인주의 참가자	28	15.57	(2.52)	35	17.94	(2.55)
집단주의 참가자	28	18.46	(2.46)	13	18.38	(2.26)
상담자의 전문성						
개인주의 참가자	28	18.93	(2.43)	35	16.71	(2.71)
집단주의 참가자	28	18.11	(3.11)	13	18.00	(2.52)
상담자의 신뢰성						
개인주의 참가자	28	18.64	(2.31)	35	18.00	(3.16)
집단주의 참가자	28	19.07	(2.28)	13	19.00	(2.12)
전체점수						
개인주의 참가자	28	55.14	(5.69)	35	52.66	(7.17)
집단주의 참가자	28	55.64	(6.40)	13	55.38	(6.17)

참고 : 상담자의 호감성, 전문성, 신뢰성 척도 점수의 범위는 4~24이며, 전체점수의 범위는 12~72개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함.

표1을 살펴보면, 상담자의 호감성 척도 점수만 제외하면, 즉 전문성, 신뢰성, 전체점수에서는 개인주의 참가자들은 집단주의 상담모형보다 개인주의 상담모형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평정을 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주의 참가자들은 반드시 개인주의 상담모형보다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참가자의 가치성향과 상담모형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원변량분석을 하기 전에 평균점수만 보아도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실제로 이원변량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음의 표2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가설1〉을 지지하기 위하여 상담자의 호감성,

표 2. 상담자 평정 척도 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df	SS	MS	F
상담자의 호감성	1	10.86	10.86	1.76
참가자의 가치성향(A)	1	1.05	1.05	0.17
상담모형(B)	1	1.15	1.15	0.19
A * B	100	616.78	6.17	
Error	103	629.85		
Total				
상담자의 전문성	1	3.49	3.49	0.47
참가자의 가치성향(A)	1	51.28	51.28	6.88**
상담모형(B)	1	25.10	25.10	3.37
A * B	100	745.68	7.46	
Error	103	825.54		
Total				
상담자의 신뢰성	1	14.46	14.46	2.13
참가자의 가치성향(A)	1	4.63	4.63	0.68
상담모형(B)	1	1.85	1.85	0.27
A * B	100	678.29	6.79	
Error	103	699.22		
Total				
전체점수	1	80.39	80.39	1.92
참가자의 가치성향(A)	1	68.67	68.67	1.64
상담모형(B)	1	28.04	28.04	0.67
A * B	100	4186.82	41.87	
Error	103	4363.91		
Total				

**p < .01

전문성, 신뢰성 점수에서 참가자의 가치성향과 상담모형간의 상호작용효과 (A*B)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05의 유의도 수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상담자의 전문성 척도 점수에서는 상담모형 (B)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상담자가 상담 회기 중에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상담자의 전문성을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이성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장면을 관찰할 때에, 개인주의 상담모형을 관찰한 학생들이 (N=56, M=18.52)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관찰한 학생들 (N=48, M=17.06)보다 상담자를 더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상담자의 전문성을 평가한 점수에서 특히 상담모형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기여한 집단이 개인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집단인지 아니면 집단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집단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참가자들과 집단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참가자들을 따로 구분하여 각각의 집단내에서 개인주의 상담모형을 관찰한 학생들의 전문성척도의 평균점수와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관찰한 학생들의 전문성척도의 평균점수간에 t검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비교적 높으면서 개인주의 상담모형을 관찰한 학생들이 (M=18.93) 개인주의 가치성향을 지니고 있으면서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관찰한 학생들 (M=16.71)보다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비교적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개인주의 상담모형을 관찰한 학생들

과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관찰한 학생들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담자의 전문성 척도 점수에서 상담모형에 대한 효과는 나타났으나 상담모형과 참가자의 가치성향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즉 개인주의 참가자들은 집단주의 상담모형보다 개인주의 상담모형을 분명하게 선호한 데 반해, 집단주의 참가자들은 특별히 어떤 상담모형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상담의 효과에 대한 평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내담자는 상담자가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할 때 상담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것이며, 반면에 집단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내담자는 상담자가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할 때 상담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것이라는 두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내담자 기대 척도 점수와 상담 계속성 예견 척도 점수 각각에 대하여 참가자의 가치성향과 상담모형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가설2>를 지지하기 위한 조건은 이원변량분석의 결과에서 참가자의 가치성향과 상담모형간의 상호작용효과가 .05수준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변량분석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내담자 기대 척도 점수와 상담자 계속성 예견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참가자의 가치성향과 상담모형에 따라서 제시하고 이를 살펴볼 것이다.

표 3. 참가자의 가치성향과 상담모형에 따른 내담자 기대 척도 점수와 상담의 계속성 예견 척도 점수의 평균

	개인주의 상담모형		집단주의 상담모형	
	N	M(SD)	N	M(SD)
상담의 효과 I : 내담자 척도 점수				
개인주의 참가자	28	58.79(6.40)	35	53.00(8.91)
집단주의 참가자	28	57.50(7.84)	13	57.69(6.21)
상담의 효과 II : 상담의 계속성 예견 척도점수				
개인주의 참가자	28	8.46(1.35)	35	7.57(1.88)
집단주의 참가자	28	8.86(1.43)	13	8.31(1.80)

참고 : 내담자 기대 척도 점수의 범위는 14-8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함.
 상담 계속성 예견 척도 점수의 범위는 2-1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함.

내담자 기대 척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자의 전문성 척도 점수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발견 할 수가 있다. 즉 개인주의 참가자들은 집단주의 상담모형에 비하여 개인주의 상담모형을 현저하게 긍정적으로 평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집단주의 참가자들은 상담모형에 대한

특별한 선호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내담자 기대 척도 점수에서 나타났던 바와 비슷하게 상담 계속성 예견 척도 점수도 개인주의 참가자들은 집단주의 상담모형 보다 개인주의 상담모형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평정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집단주의 참가자들 에게서 나타난 상담모형간의 차이는 미세하다.

표 4. 내담자 기대 척도 점수와 상담의 계속성 예견 척도 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df	SS	MS	F
상담의 효과 I : 내담자 기대 척도 점수				
참가자의 가치성향(A)	1	98.31	98.31	1.66
상담모형(B)	1	319.05	319.05	5.38*
A * B	1	201.99	201.99	3.41
Error	100	5926.48	59.26	
Total		6545.84		
상담의 효과 II : 상담의 계속성 예견 척도점수				
참가자의 가치성향(A)	1	12.69	12.69	4.81*
상담모형(B)	1	14.41	14.41	5.47*
A * B	1	0.67	0.67	0.25
Error	100	263.73	2.64	
Total				

* p < .05

다음에는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진 내담자 기대 척도 점수와 상담의 계속성 예견 척도 점수 각각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상담자의 전문성 척도 점수에서 나타났던 바와 마찬가지로, 내담자 기대 척도 점수에서도 참가자의 가치성향과 상담모형간의 상호작용효과(A*B)는 나타나지 않아서 <가설2>를 지지할 수는 없었으나, 상담모형의 효과(B)는 .05 수준에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집단주의 상담모형 (M=54.27)에 비하여 개인주의 상담모형 (M=58.14)이 더 상담의 성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주의 참가자 집단과 집단주의 참가자 집단 중에서 특히 어느 집단이 상담모형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는지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개인주의 참가자 집단과 집단주의 참가자 집단을 분리시켜서 각각의 집단에 대하여 상담모형간의 차이를 t검증해 본 결과, 상담의 전문성 척도 점수에서 나타났던 바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개인주의 참가자 집단에서는, 개인주의 상담모형을 관찰한 학생들이 (M=58.79) 집단주의 상담모형을 관찰한 학생들(M=53.00)보다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t=2.89), 상담의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주의 참가자 집단에서는 상담모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비교적 강한 대학생들은 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건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던지에 따른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었다.

표4에 제시된 바와 의하면, 상담의 계속성

예견 척도 점수에 대하여 참가자의 가치성향(A)의 효과와 상담모형(B)의 효과는 나타났지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개인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내담자는 상담자가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할 때 상담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것이며, 반면에 집단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할 때 상담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데에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상담 계속성 예견 척도 점수에서 부수적으로 얻은 한가지 결과는 참가자의 가치성향에 따라서 상담의 계속성에 대한 예견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부수적인 결과는 상담자의 전문성 척도 점수와 내담자 기대 척도 점수에서 나타났던 바와 마찬가지로, 상담 계속성 예견 척도 점수에서도 상담모형의 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상담자가 상담회기 중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상담의 계속성에 대한 예견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참가자 가치성향의 효과가 의미하는 바는, 상담자가 상담회기 중에 어떤 가치(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를 추구하는지에 관계없이, 비교적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대학생들(M=7.97) 보다는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대학생들(M=8.68)이 상담장면에 나타난 상담자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담을 할 것이라는(만일 자신들도 비디오테이프에 나타난 내담자와 같이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서 상담장면에 나타난 상담자와 상담을 해 볼 기회를 갖는다면)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하였다.

상담모형의 효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은 그들의 가치성향에 관계없이(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하든 아니면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지에 상관없이),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 ($M=7.77$)보다는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M=8.66$)와 앞으로도 상담을 계속하고 싶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담의 계속성 예견 척도 점수에 대한 상담모형의 효과에서도(상담자의 전문성 척도 점수와 내담자 기대척도 점수에서 나타났던 바와 마찬가지로) 집단주의 참가자 보다는 개인주의 참가자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주의 참가자 집단과 집단주의 참가자 집단을 분리하여 각각의 집단내에서 상담모형간의 차이를 t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상담자의 전문성과 내담자 기대 척도 점수에서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비교적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 ($M=7.57$) 보다는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M=8.46$)와 앞으로도 상담을 계속하고 싶을 것이라는 예견을 한 경향이 더 강한테 ($t=2.11, p<.05$) 비하여, 비교적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상담자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상담계속성에 대한 예견을 다르게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원변량분석에서 상담모형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집단은 집단주의 참가자들이 아니라 개인주의 참가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즉 비교적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이 상담자가 상담회기 중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상담의 효과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비교적 강한 대학생들은 상담자가 상담회기 중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상담의 효과를 다르게 평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두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자 평정 척도 점수(호감성, 전문성, 신뢰성 척도 점수)와 내담자 기대 척도 점수, 그리고 상담 계속성 예견 척도 점수 각각에 대하여 이원변량분석(참가자의 가치성향 X 상담모형)을 하였다. 이원변량분석의 결과, 참가자의 가치성향과 상담모형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05수준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서 본 연구의 가설을 전적으로 지지하는데에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이원변량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상담모형의 효과이다. 구체적으로, 비교적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상담회기 중에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 (즉 가족에 대한 염려, 관심, 가족간의 조화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는 상담자) 보다는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 (즉 내담자의 감정, 욕구, 목표와 같은 내담자의 내적인 경험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는 상담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더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상담의 성과와 상담의 계속성 여부에 대하여도 더 낙관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반하여 비교적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상담회기 중에 상담자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상담자가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던지 아니면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던지에 따라서 상담자의 호감성,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상담의 효과를 다르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시사해 주는 바는, 상담자가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비교적 강한 대학생(특히 여대생)들을 상담할 경우에는 상담자가 상담장면에서 개인주의와 관련된 가치들에 초점을 맞출 때 더 상담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내담자들을 상담할 경우에는 상담자가 상담장면에서 어떤 가치에 초점을 두느냐의 문제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와같은 결과가 혹시 참가자들의 집단별 분포의 불균형(즉, 개인주의참가자/개인주의 상담모형, 28명; 개인주의 참가자/집단주의 상담모형, 35명; 집단주의 참가자/개인주의 상담모형, 28명; 집단주의 참가자/집단주의 상담모형, 13명)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다.

둘째로,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상담자-내담자의 가치관과 상담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단지 문화권이 다른 나라의 학생들간의 비교(즉 미국의 학생들과 비서양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간의 비교)만을 통하여 발견된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왜냐하면 비교적 집단주의 가치관이 강한 문화권이라고 알려진 한국의 문

화권 내에서도 그들의 개인적인 가치관의 수준에 따라서(즉 비교적 더 개인주의적인 또는 비교적 더 집단주의적인 학생들간에) 상담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하여 다른 평가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 예를 들면, Kelly와 Shilo의 연구에서 미국의 학생들이라고 하여 반드시 집단주의와 관련된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그렇게 놀랄만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구에서는 미국 문화권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개인적인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미국 문화권이라고 하여 모든 대학생들이 다 개인주의적인 가치성향만을 지니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에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가치성향을 비교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학생들 집단과 비교적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대학생들이 상당히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를 선호하는 결과에 대하여 비교적 집단주의 가치관이 강한 문화권이라고 알려진 한국의 대학생들이라고 하여 반드시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문화권 내에서도 나타나는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가치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상담자-내담자의 가치관이 유사할 때 상담의 효과가 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예를 들면, 박외숙, 1992; Foon, 1986; Lewis & Walsh, 1980)를 모든 경우에 일반화 시

키는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담자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상담의 효과도 더 낙관적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담장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유사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비교적 강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결론이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다음에는, 비교적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여대생들은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가치와 유사한 가치를 드러내는 상담자에 대하여 반드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해 본다. 그것은 우선 비교적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에 비하여 상담자의 접근방식에 대하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상담자가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하던 아니면 집단주의 가치를 추구하던지에 상관없이 비슷한 평가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와같은 평가를 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로,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에 비하여 상담에 대한 기대나 인식, 필요성 등이 오히려 낮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문제의 심각도나 도움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볼 때,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에 비하여 더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단주의라는 특성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본다. 즉 집단주의 가

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아마도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외의 다른사람에게 상담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더 근원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상담자의 접근방식에 대한 문제는 이차적인 문제로 간주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다. 이와같은 추측을 하게된 배경은 Atkinson과 Gim(1989)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신을 아시안계라고 간주하는 학생들이(즉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더 강할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자신을 서양인이라고 간주하는 학생들(즉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더 강할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에 비하여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상담에 대한 수치심, 마음을 터놓고 상담을 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싶은 것은 상담의 계속성에 대한 예견 척도 점수에서 비교적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여대생들이 비교적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여대생들에 비하여 더 낙관적이 예견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담의 계속성 예견 척도 점수 뿐만이 아니라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을지라도, 상담자 평정 척도 점수와 상담의 효과를 측정 한 척도 점수에서 전반적으로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에 비하여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가 과연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에 비하여 실제로 상담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이 집단주의의 특성의 하나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다시말하면 실제로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상담의 접근방식에

상관없이 상담의 계속성 여부에 대하여 낙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집단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학생들과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상담자와 상담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는데 사용한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결론으로 더 기울어진다. 따라서 집단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개인주의 가치성향이 강한 학생들에 비하여 상담에 대하여 더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보류하고 싶다.

참 고 문 헌

- 박외숙(1992). Asian foreign students' evaluations of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ounseling styles.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1, 108-128.
- 오경희(1986). 초기상담에서 상담자의 반응의도 전달이 내담자의 의도 지각 및 상담의 효율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Atkinson, D. R. & Gim, R. H. (1989). Asian-American cultural identity and attitude toward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180-186.
- Cach & Kerh(1978). Influence of no professional counselors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ex on perceptions of counselor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336-342.
- Chambers, M. A.(1979). *Effects of counselor race and counselor attributional style on black and white student-observers evaluations of counselor expertness, social attractiveness, trustworthiness, and prognostic expectations for counsel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Indiana.
- Corrigan, J. D. & Schmidt, L. D.(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visions in the Counselor Rating For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64-75.
- Exum, H. A. & Lau, E. Y.(1988). Counseling style preference of Chi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16, 84-92.
- Foon, A. E.(1986). Effect of locus of control on counseling expectations of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462-464.
- Friedlander, M. L.(1982).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counseling: Changes over time and in relation to verbal behavior.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3, 402-408.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Kang, J. R.(1992). *The effects of counselor ethnicity, counseling style, and acculturation on male Korean graduate*

- students' perceptions of counselor effect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Indiana.
- Kelly, E. W. & Shilo, A. M.(1991). Effects of individualistic and social commitment emphases on clients' perceptions of counselors. *Professional Psychology : Research and Practice*, 22, 144-148.
- Lewis, K. N. & Walsh, W. B.(1980). Effects of value-communication style and similarity of values on counselor evalu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305-314.
- Sue, D. W. (1981). *Counseling the culturally different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 John Wiley & Sons.
- Thomas, K. A. & Althen, G.(1989), Counseling foreign students. In P. Pedersen, J. Draguns, W. Lonner & J. Trimble(Eds.), *Counseling across cultures*(3rd ed., pp. 205-241).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Tseng, W. & McDermott, J. F.(1975), Psychotherapy : Historical roots, universal elements, and cultural variation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2, 378-384.
- Yuen, R. K. & Tinsley, H. A.(1981). International and American students' expectancies abou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66-69.

A study on the similarity of counselor – potential client's values and expected counseling effectiveness

Young-Hee Lee Wea-Sook Park Hang-Ja Koh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test the two hypotheses. The first hypothesis was that potential clients with individualistic(or collectivistic) values would more positively evaluate counselors pursuing the similar values with clients. The second hypothesis was that potential clients with individualistic(or collectivistic) values would expect the counseling more effective when counselors pursue the similar values with clients.

A total of 104 femal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y were assigned to one of the two groups(individualistics and collectivistic) matched with respect to their Individualistic-Collectivistic Value Scale scores. This study was designed as an analogue study which participants evaluated the counselor and anticipated counseling effectiveness as if they were pretending to be real clients while observing videotapes showing counseling interviews. The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one of individualistic group observed the videotape showing an individualistic counselor role and collectivistic group observed the videotape showing a collectivistic counselor role. After observing the assigned tape, each participant completed the Counselor Rating Form-Short Version, the Client Expectancy Questionnaire, and the Expectancies for Counseling Continuation scal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2(Participant Values: Individualistic or Collectivistic) X 2 (Counseling Style : Individualistic or Collectivistic) ANOVAs. Interaction effects of participant values and counseling style for the dependent measures were expected to support the hypotheses. However, none of the interaction effects were found and the

study failed to support the stated hypotheses. Nevertheless, analyses of the data provided some useful information.

That was, participants who have relatively individualistic values evaluated the counselor to be more expert and expected the counseling to be more effective for the individualistic counselor than the collectivistic counselor. Another interesting finding was that counselor values pursuing either individualistic or collectivistic values in counseling dyads did not make any differences in the evaluations of participants who have relatively collectivistic values.